

삶과 죽음을 하나로 묶는 장엄한 의식

영산재보존회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 19회 영산재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매년 단오절(음력 5월 5일)에 시행돼 왔으나 이번에는 주한 외교사절 등을 초청해 현충일에 시연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산재는 원래 3일동안 의식이 진행이 되지만 이날은 축약된 행사로 선보인다. 이번 시연회는 시연, 대령, 신중작법, 시식, 화장, 봉정, 식단작법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연은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 대령은 모셔온 영혼을 접대하고 부처님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는 의식, 관육은 영혼이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의식, 신중작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이다.

상단공공은 부처님에게 공양드리고 법문을 듣고 영산재를 올리게 된 이유를 부처님께 알리는 의식, 시식은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 화장은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의식, 봉송은 영혼을 돌려보내는 의식, 식단작법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참석자 대중에 모여 공양을 하는 의식이다.

주한 외교사절 등 초청 현충일날 시연 패불 모시고 거령산 짓소리 이운 선패 십대왕 이운 운수중단 특별히 재현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88년 이후 처음으로 만월전에서 패불을 모시고 내려와 거령산 짓소리로 이운하는 의식을 보여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명부전에서 지장보살을 위해서 십대왕을 이운하는 운수중단도 특별히 재현된다. 이때 운수중단 의식에는 국립국악원의 3현 6각의 능가타령이 연주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영산재 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봉원사 주지)은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와 일본, 몽골 등 5개국에서 문화예술국 간부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모두 유네스코 등재위원들이지만 이번 영산재 시연은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다.

영산재 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은 "영산재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종교의식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세계 어느나라 무용계에서도 흥내낼 수 없는 다양한 춤사위를 삼십세기 시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그런 점에서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일운 육전법음대학 학장 스님도 "원래는 범음대 학생들이 졸업을 해야 영산재 시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번 행사에는 의식의 일부인 작법과 소리 등을 보존회 회원 스님들과 함께 참여해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기자



불교의식 범패승에 대한 계보

삼국시대의 법회 의식에 기록은 진평왕 15년(613년) 황룡사 백고좌(百高坐) 설치기록만이 전하며, 범패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경상도 하동 쌍계사(雙溪寺)에 있는 진감국사(眞鑑國師) 대공탑비문(大空塔碑文)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범패 계보에 대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는 송유역불정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의식 자료가 남아 있고 이 가운데 1748년 영조 4년 대허상각 작성한 <범음종보>에 범패 계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1대 국음(國音) : 세종 1418년~1450년 때 활약 => 2대 응준(應俊) => 3대 해운(海雲) => 4대 천취(天취) => 5대 연형(演衡) => 6대 상환(尙還) : 임진왜란(1592년 이후 활약) => 7대 설호(雪湖) => 8대 문계당법민(雲溪堂法敏) : 효종 1660년~1669년 때 활약 => 9대 해감(海鑑) => 10대 순영(順映) : 유민(俞敏) · 채정(采正) · (봉암사), 천오(錢梧) · (남명, 불회사), 성각(性覺) · (능선 첩보사, 개천사), 축찰(竺察) · (해남, 대흥사), 대취(大輝) · (장릉, 보림사), 이진(怡眞) · 풍석방 · (순천, 선암사), 각선(覺禪) · (구례, 화엄사), 도인(道忍) · (순천, 대량사), 연기(演機) · (고흥, 금당사) => 11대 개관(開觀) => 12대 홍해(洪海)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범패는 1973년 11월 5일 박송암(1915~2000), 김운공(1907~1984), 장벽음(1909~2000) 스님 등 세 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최초로 지정됐다. 그 후 1987년 11월 11일 범패, 장엄, 작법부분은 이일운(1920~2003) 스님이 문화재로 지정돼 체계적인 계보가 형성됐다.

영산재 보존회 6월 6일 '제19회 영산재 시연회 개최'

유네스코 등재위원 간부들 참여 예정 세계문화유산 등록 위한 중요한 행사



큰패불을 모시고시연되는 나비춤.



영산재의 각 의식은 생사가 돌아나온 화해와 평등의 가르침을 담은 공양이다.



■ 영산재란?

영산재(靈山齋)란 지금으로부터 불기(佛紀) 약 2600년전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衆生)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하실 때의 그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영산재(靈山齋)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영산재(靈山齋)는 공연이 아닌 장엄한 실제의 불교의식을 알고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 모두가 불법 가운데 하나가 되어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고 이로써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이 성취되기를 염원하며 부처님전에 행하는 최대 최고의 장엄한 불교의식이다. 또한 이 영산재(靈山齋)는 의식의 절차가 각종 전통문화의 요소를 내포한 음악적, 무용적 요소와 더불어 연극적 요소의 효과를 나타내 하고 있다. 대한민국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봉원사(奉元寺) 영산재보존회(靈山齋保存會)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음악적, 무용적 요소란 의식 진행중에 범음(梵音)과 화정(和聲)등이 음악적 효과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교 음악에 맞춰 비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3현6각(三絃六角), 호적, 취타 등의 각종 악기가 동원돼 함께 연주한다.

▲ 영산재보존회 연혁

- ▲이월하스님-1875년 출생-1960년 11월 11일 작고 (세수75세, 법랍 60세) 근세기 범음범패에 중흥기여
- ▲1969년-육전법음회 최초설립
- ▲1973년 11월 5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 범패부분 : 김명호(운공스님) 1982년 음.10월10일 작고 박희덕(송암스님) 2000년 2월 1일 작고 장태남(벽음스님) 2000년 3월 25일 작고
- ▲1987년 11월 7일-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단체지정
- ▲1987년 11월 11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 장엄부분 : 정순정(지광스님) 1996년 2월 21일 작고 작법부분 : 이재호(일운스님) 2003년 5월 11일 작고
- ▲2005년 11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 범패부분 : 김인식(구해스님)
- ▲1988년 ~ 2005년-매년 영산재 시연(총 17회)
- ▲2006년 1월 영산재 보존회 회원현황 -보유자 1명: 김구해 스님 (영산재보존회 총재) -전수교육조교 3명:미일운 스님(육전법음대학장) 이기봉 스님(영산재 연수원장) 오송강 스님(육전법음대학부학장) -교육보조자 3명: 이경안 이월명, 한동희 -이수자 32명:박고산 김능화 조인각 김호준 최원희 윤해일 이은봉 조현성 김법현 김철타 방보명 권종일 이호산 김미산 김대희 김와룡 송법우 박법안 이정오 김현준 김현수 장청봉 조혜산 조효광 오보은 박처명 변춘광 류화산 심지희 한해사 신주혜 김선혜 -전수생 59명-노혜공 스님 외 58명 -준회원 150명-김정명 스님 외 149명 -총계 : 248명
- 연수원장 : 이기봉 스님
- 연수부원장 : 최원희, 김효천(법통) 스님
- 정기교육 #대상자 : 이수자/기간 : 약1주일 내외, 연 12회 실시 #대상자 : 전수자/기간 : 약1주일 내외, 연 12회 실시
- 해외교육 #대상자 : 영산재보존회원/기간 : 년 1회 실시

<국내 공연실적>

- 1985년 9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산재 공연
- 1988년 8월 25일 서울 올림픽대회 성화봉송기념 법회
- 1993년 5월 10일 세계불교도협회 초청 영산재 시연
- 2000년 9월 10일 서울마당놀이 영산재 시연
- 2001년 4월 26일-27일 국립국악원 50주년 기념초청 영산공연
- 2001년 11월 5일 삼정각 개관기념 공연
- 2002년 5월 30일-6월 28일 2002 한일월드컵 성공개최 영산대제
- 2002년 10월 4일-10월 13일 2002 부산아시아대만 성공개최 영산대제
- 2003년 4월 6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49일 영산대제
- 2003년 8월 17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념 영산재
- 2003년 11월 4일 국립극장(달오름) 기념초청 나비바나 공연
- 2003년 1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생인정서 수여
- 2004년 6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단체지정기념 영산재 시연

<해외 공연실적>

- 1996년 8월 7일 캐나다 토론토 시티TV 방송초청 영산재시연(1주일)
- 1997년 9월 8일 대만 타이베이 세계불교 영산재시연(대만 국립문화관)
- 1997년 9월 21일 한국문화예술원(독일 함부르크) 장소 : 파브릭 무작할 레
- 1999년 8월 7일-16일 스페인대사관 초청 99스페인민족축제 불교음악 및 무용, 음악출연(스페인 오렌세)
- 2000년 5월 14일 국제교류재단 불교음악 불교무용 공개세미나 공연, 하와이 대학, 글리브스스 미국박물관 공연
- 2000년 5월 22일-6월 5일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무용의 5000년(미국 캐네기메인홀)
- 2000년 7월 12일-19일 스페인 카디스 초청 국제무용페스티벌 참가 불교음악 불교무용
- 2000년 7월 23일-28일 스페인 씨드와리알 제19회 국제무용페스티벌
- 2000년 8월 15일 아프리카 수단 대사관 초청공연 불교음악 불교무용 출연
- 2001년 7월 2일 오스트리아 초청공연(ORF)
- 2001년 7월 6일 벨기에 초청공연
- 2001년 7월 23일 스웨덴 국제민속축제 초청공연
- 2001년 7월 28일 일본 동경국립극장 영산공연
- 2001년 9월 6일 독일 뒤셀도르프 박물관 초청공연
- 2002년 1월 15일 대만(국가회극원) 초청공연
- 2003년 4월 23일 뉴욕 Japan 소사이어티 초청 영산공연
- 2003년 12월 10일-15일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종교음악축제 영산공연